

생명의 정치

박호성

생명(生命)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살라는 명령'이다.
그리고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자연의 일부, 아니 자연 그 자체다.

자연을 가리키는 영어는 '네이처(nature)'인데, 이 말은 라틴어 '나투라(natura)'에서 유래했고, 그 본래 뜻은 '태어남'이나 '만들어짐'이라 한다. 요컨대 서양에서의 자연(nature, natura)이란 '생명이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는 말이다. 이런 맥락에서 자연을 가장 많이 닮은 생명체가 인간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어느 철학자는 인간을 잎이라 한다면, 자연은 나무라 일컬을 수 있다고 멋들어서 말했다. 나무를 떠난 잎이 정녕코 살 수 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자연은 우리 인간들의 마지막 동반자라 할 수 있다. 아니, 자연은 생명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연을 학대하는 것은 곧 자신의 삶 그 자체를 박해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단순하지만 또 단순히 잊혀지는 것은,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에도 자연은 존재했고, 인간이 죽는다고 자연이 따라 죽지는 않지만 자연이 죽으면 인간은 반드시 따라 죽는다는 사실이다. 아니, 자연을 죽이면 자연이 죽인다

여기서 자연스레 세 개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를테면 인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삶을 허여하는 주체인 자연에 대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 문제가 바로 ‘생명의 정치’의 본질을 형성한다.

1. 인류가 살아온 길

인류의 역사는 생명을 보존하는 방식의 진화 과정이다.

그리고 생명의 원천인 자연에 대한 관심의 폭과 깊이도 역사 발전 단계에 따라 다양하게 변모해왔음은 물론이다.

원시인들은 도처에 먹을 것과 숨을 곳을 제공해주는 풍요한 대 삼림 속에서 다른 동물들과 뒤섞여, 일정한 주거도 없고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일도 없이, 아마도 일생에 서로 부딪칠 일도, 알고 지낸다는지 대화를 나눌 필요도 없이,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살았다. 산업도, 언어도, 가족도 존재하지 않았다. 인간은 다른 인간 또는 인간 집단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고, 싸움을 좋아하지도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욕망도 지니지 않았다. 따라서 질투라든가 선망, 복수욕, 좋은 평판을 받으려는 욕망, 이런 여러 복잡한 감정들은 아주 원시적이고 비사회적인 인간들에게는 지극히 생소한 것들이었다.

이처럼 수렵과 어로로 삶을 꾸려가던 이 시절 우리 인류는 고립적인 ‘가족 공동체’ 속에서 힘든 생활을 꾸려나갔다. 이때 우리 인류 최대의 ‘적’은 바로 자연이었다. 홍수, 가뭄 등 천재지변 같은 것이야말로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대재앙이었기 때문이다. 그러하니 자연에 대한 외경심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밖에 없었다. 태양과 달을 향해 빌기도 했을 것이고, 또 거대한 바위나 가공할 맹수 등도 신령스러운 존재로 비칠 수밖에 없었을 터이다. 요컨대 자연에 대한 공포를 바로 또 이 자연의 위력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원시적 순박함이 인류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차차 지혜가 발달하게 되면서 인간은 이제 모든 것을 자연과 우연에만 내

맡기는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정착 생활을 꾸려나가기 시작했다. 서로 뿔뿔이 흩어져 고립된 생활을 영위하던 동료 인간들이 힘을 합치면 자연의 재앙에 함께 맞서 싸우기도 더욱 편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더욱 능동적으로 자연의 혜택을 더불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졌을 터이다. 그 와중에 다른 공동체가 자행하는 약탈이나 공격에 보다 효율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필요성도 생겼을 것이다.

이윽고 농경사회가 성립하면서 '종족 공동체'가 만들어졌다. 가옥의 축조와 더불어 최초의 사유재산도 발생하게 됐다. 토지가 경작됨에 따라 토지의 분할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고, 수렵, 어로에서 획득된 수렵물들과는 달리 농작물은 쉽게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인 점유와 부의 축적도 가능하게 됐다. 그에 따라 소유의 불평등이 점점하고 자신의 부를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일도 가능하게 됐다.

이런 정착 생활의 연륜이 깊어 감에 따라 토지에 대한 애착과 탐욕이 증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토지야말로 사회적 부와 권력의 원천이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토지 소유의 정도에 의해 사회적 권력의 강약이 판가름나는 토지 중심의 '신분 공동체'가 생성됐다. 신분적 특권과 그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의 제도화가 그 필연적 결과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자급자족적 생산 구조와 사회적 생산력의 불가피한 한계는 사회 내부에 현존하는 각종 굴레에 큰 불편을 느끼게 하지 않았다. 이 봉건사회의 지역적 폐쇄성과 편협성은 결국 동일한 사회적 체험, 동일한 문화양식의 꾸준한 향유, 그리고 그에서 비롯하는 운명 공동성에 대한 일상적 확인의 과정을 통해 점차 고유한 공동체적 특성을 만들어내게 됐다.

그러나 과학, 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른 사회적 생산력의 증대는 전통적 토지 중심의 지배질서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그에 발맞춰 고유한 언어와 전통 등에 의해 견고히 묶여지는 새로운 유형의 인간 집단이 출현하면서 '민족 공동체'가 생성됐다.

이 민족 공동체는 '가능한' 범위까지의 전 주민의 동질화, 단일화, 통일화를 지향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은 민족의식의 효율적인 동원에 의해 뒷받침됐다. 자본주의적 상품생산 체제로의 역사적 이행은 결과적으로 봉건사회의 지방적 한계 및 신분

적 구속의 철폐 요구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에서 여러 차례 되풀이됐던 시민혁명은 바로 이 층들의 가장 집약적인 표현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시민혁명을 통해 각종 봉건적 특권과 질곡이 제거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맞는다. '형제적 우애(fraternity)'라는 프랑스 혁명의 구호는 바로 신분적으로 분열됐던 봉건사회를 형제와도 같은 '동질적' 민족사회로, 즉 신민(臣民)을 국민(國民)으로 통합하고 결집시키기 위해 동원됐던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민족 공동체 상호간의 관계는 극심한 갈등과 경쟁으로 점철됐다. 그 외중에 자연은 순수한 정복의 대상으로 전락해 마구잡이로 노략질 당하는 뼈아픈 세월을 겪지 않으면 안 됐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국제적 팽창과 더불어 세계 문화가 창출되고 그에 따라 민족의 특수성과 폐쇄성이 점차 용해되어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국경을 초월해 어디서나 다 통용되지만, 언어는 통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른바 '세계화'의 본질이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화 시대의 '영구 집권'을 알리는 팡파르가 높이 울려 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 공동체 시대는 끈기 있게 존속할 것이다.

현재 이런 시대 상황에 발 맞추어 환경 오염 및 자연 파멸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 역시 더불어 세계화하고 있다. 자연 현상이란 전 지구적 차원에서 발생하고 확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민족만의 이기적인 이해관계에만 집착할 수 없도록 만드는 역설적 상황을 강요받는다. 요컨대 전 지구의 생존 및 인류의 공생을 위한 범 세계적 단합과 결속이 결정적으로 요청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말이다.

오늘날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한계 상황을 인간 스스로 극복하도록 촉구하는 역사적 '시혜'가 베풀어지고 있는 듯하다. 말하자면, 민족 공동체의 이기적 본성이 극한 상황에 다다르게 되자 인간적 공생주의를 강압하는 인류사의 변증법적 제재가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윽고 자연과 인간의 합일을 지향하는 '생명 공동체' 시대가 출현한 것이다.

인류는 지금껏 '자연'에서 출발해 또 다시 '자연'으로 회귀하는 삶의 양식을 발전시켜온 셈이다. 이를테면, 자연을 맹목적으로 섬기기만 해온 무기력한 '가족 공동

체'에서, 자연의 파괴만을 일삼아온 완력적인 '민족 공동체' 단계를 거쳐, 힘을 사랑하는 인간이 아니라 사랑의 힘을 가진 인간이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공생의 '생명 공동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말이다.

2. 생명의 원천, 자연의 가르침

자연은 인간의 교사다. 자연은 본래 어머니의 품, 학교, 절 같은 곳이다. 자연의 모든 것이 책이고 스승이며 성직자다. 그러나 자연과 떨어진 문명인들은 문명화되는 수준과 속도만큼 순수의 빛을 상실할 것이다.

루소도 『에밀』에서 “자연은 절대로 우리를 기만하지 않는다. 우리 자신이 언제나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이라 힘줘 말하지 않았던가. 그렇기 때문에 루소는 신이 창조한 모든 것은 선(善) 그대로였으나 인간의 손길이 닿자 모든 것이 악으로 변했다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말하자면 그는 양심을 사랑하고 이성을 깨닫고 자유를 선택하는 것을 선(善)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그러나 근심은 욕심에서 생겨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연(nature)’이 인간의 ‘본성’으로 풀이되는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다. 사전에서도 자연은 “사람이나 물질의 본디의 성질, 본성”으로 해석되고, ‘자연스럽다’라는 말이 “꾸밈이나 거짓이나 억지가 없어, 어색하지 않다”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맑스도 ‘인간의 자연화(Vernatlichung des Menschen)’와 ‘자연의 인간화(Vermenschlichung der Natur)’를 역설한 적이 있다. 그에게 자연은 물론 인간화하고 사회화한 자연이다. 그러므로 변화시킬 수 없는 자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은 인간에 의해 변화하고 인간은 또 그를 통해 자신의 자연, 곧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연을 변형시키는 힘이기도 하다. ‘자연의 인간화’란 결국 ‘자연의 사회화’를 의미하며, 인간 노동의 지속적인 투여 과정을 일컫는다. 맑스에 따르면, 그러나 인간은 사회화한 자연의 인간화, 곧 사회의 개조, 즉 ‘사회의 인간화’를 지향한다. 그러므로 맑스는 인간의 역사과정을 자연의 사회화와 사회의 인간화의 종합, 즉 노동과 해방의 총화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역사과정 중에 ‘인간의 자연화,’ 요컨대 인간의 자연, 즉 인간 본성의 변화가 이뤄짐을 역설하고 있다. 이를테면 인간과 자연 사이에는 변증법적 상호관계가 성립한다는 말인 것이다.

한마디로 인간은 자연의 산물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오피게 하여하는 존재가 곧 자연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의 태도야말로 자연적 존재로서의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적 자세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인간은 자연의 산물 중에서 가장 영리한,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장 교활한 생명체라 할 수 있다. 인간만큼 계획적이고 상습적으로 자기 자신의 종족을 대대적으로 파괴하고 말살하는 포유류가 과연 자연 어디에 존재하겠는가. 어디 그뿐인가.

예컨대, 누에는 에벌레처럼 생겼고 뱀장어는 뱀과 닮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에나 뱀장어를 보면 징그럽다고 질겁하기 일쑤다. 그러나 실 뱀은 여인들은 즐거이 누에고치를 어루만지며, 어부와 뱀장어 장수는 흥겹게 뱀장어를 쓰다듬는다. 이처럼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연을 어루더듬기도 하고 기피하기도 하는, 그렇지만 영원히 자연을 등지지는 못하는 기회주의적 생물이 인간 아니겠는가.

그러나 자연의 섭리는 공평하다. 예컨대 사자는 항상 많은 양의 고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자연으로부터 강인한 용맹과 강력한 살상력을 보상받지 않았는가. 빨 있는 놈은 이빨이 시원찮고, 날개가 있으면 다리가 두 개뿐이며, 이름난 꽃은 열매가 없고, 고운 빛깔의 구름은 쉬이 흩어지지 않는다. 인간 역시 크게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가장 많은 욕망과 욕구를 부여받았으면서도 그것들을 충족시키기에는 가장 미약한 수단만 제공받은 존재일 따름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연은 인간으로 하여금 서로 상부상조함으로써 스스로의 결핍을 서로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나는 바로 이 가르침을 우리 시대의 ‘자연주의’라 부른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요컨대 인류가 우리를 ‘시민’으로 만들어주기 전에 대자연은 우리를 먼저 ‘인간’으로 만들어주었다는 사실은.

그러하니 사람을 험뜯고 미워하고 업신여기면서 과연 산과 들과 강을 좋아한다거나 꽃과 숲의 향내를 사랑하고 새소리를 즐긴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람이 싫어 자연에 과묵하다는 말보다 오히려 사람이 좋아 그리로 향한다는 말이 더욱 진솔하지 않겠는가.

1) 원시인 정치론

우리는 자연 속에서 태어나고 자연 속에서 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인간은 그 속에 있고 자연은 우리의 가운데 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다시 그 속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자연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자연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 가깝고, 우리가 한번도 그곳에서 벗어난 일이 없기 때문이라. 자연 속에 우리 인간이 있듯이 우리 인간 안에 자연이 있으며, 자연과 인간이 둘이 아니고 곧 하나임을 자연스럽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자연은 인간적이어야 하고, 인간은 또 자연적이어야 한다. 자연과 인간은 '생명 공동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인간답게, 그리고 인간을 자연스럽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구호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처럼 자연과 인간의 합일, 요컨대 동일한 자연의 산물로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온전한 평등 실현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원시인 정치론'인 것이다.

① 원시인, '현대인의 아버지'

예컨대 미국은 자연의 염원과 기대를 짓이긴 경력이 화려하다.

가령 미국 대통령 피어스는 1855년 북미 인디언 수와미 족의 추장 시애틀에게 부족들이 거주하는 땅을 미국 정부에 팔고 보호구역으로 이주하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인디언들에게 땅은, 백인들과는 달리,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었다. 미국 독립 200주년을 맞아 미국 정부가 공개한 시애틀 추장의 답서가 있다. 이 속에는 야만인을 자처하는 한 인디언이 당대와 한 세기 후의 문명 세계에 보내는 간곡한 호소가 담겨 있다.

어떻게 감히 하늘의 푸르름과 땅의 따스함을 사고 팔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소유가 아닌 신선한 공기와 햇빛에 반짝이는 냇물을 당신들이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땅의 모든 부분은 우리 종족에게는 거룩한 것입니다. 아침 이슬에 반짝이는 솔잎 하나도, 냇물의 모래밭도, 뽕뽕한 숲의 이끼더미도, 모든 언덕과 곤충들의 웅웅거리는 소리도 우리 종족의 경험에 따르면 성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한 부분이고, 땅은 우리의 한 부분입니다. 향기로운 꽃들은 우리의 형제며, 시슴, 말, 커다란 독수리까지 모두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거친 바위산과 초원의 푸르름, 포니의 따스함, 그리고 인간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산과 들판을 반짝이며 흐르는 물은 우리에게는 그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물 속에는 훨씬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의 피입니다. 깊고 해맑은 호수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기억들을 되새겨줍니다 ….

이처럼 자연 종족인 이 아메리카 인디언은 자연과 인간의 합일을 타는 목마름으로 절규했던 것이다. 여기에 인간의 원시성이 내뿜는 열정적인 순수함이 있다.

예컨대 프로이트는 개인의 심리적 발전 단계가 인류의 역사와 대응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자신의 저서 『꿈의 해석』에서 “인간의 가장 심오하고도 영원한 본성은 … 어린 시절에 해당하는 선사 시대에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도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읊지 않았던가. 이 말을 인류의 역사에 대입해, 나는 원시인을 ‘현대인의 아버지’라 부르려고 한다.

그런데 ‘원시성’이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원시성은 인간을 하나로 껴안고 얼싸안게 만드는 힘을 분출한다. 따라서 야만성과는 대립적이다. 원시성은 순박하고 평온하고 자연을 닮은 됴됨이와 마음가짐 같은 것을 아우른다. 하여 ‘원시인’이란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서로 아파하고, 서로 활아주고, 서로 쓰다듬어줄 줄 아는 선량한 종족들을 일컫는다. 이를테면 ‘평화공존론’의 원조라 할 수 있다.

허나 야만성은 모질고 거칠고 사나운 심성과 짝할 것이다. 무릇 야만인이란 홀로 으쓱거리며 서로 빼앗고, 서로 할퀴고, 서로 상처 입히는 족속들을 가리킨다. 어쨌거나 미개하나 천박하지는 않고, 야생적이지만 거칠지는 않은 심성이 바로 원시성

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모름지기 '원시'를 향한 그윽한 향수로 자신들을 불지피야 할 것이다. 원시시의 노스텔지어를 끊임없이 일깨우는 일은 우리 스스로 버리고 떠나는 자연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그윽한 몸부림의 하나일 수 있다.

『동물기』로 유명한 시튼은 온 생애에 걸쳐 인디언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 한 권의 책을 편찬했다. 인디언의 삶과 철학에 관한 평생의 역작으로 알려진 『인디언의 복음』이라는 책 속에는 인디언의 '12 계명'이라는 제목이 달린 한 장이 있다.

특히 '큰 부(富)를 얻으려고 탐욕을 부리지 말라'라는 소제목이 달린 그 아홉 번째 계명은 다음과 같은 역설로 가득 차 있다.

부족 중에 궁핍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엄청난 부를 소유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천하에 불명예스러운 죄이다. 만일 상거래를 통해서나 전쟁을 통해서나 또는 위대한 영이 그에게 내려준 축복의 선물로 어떤 사람이 자신과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것 이상을 소유하게 된다면, 그는 사람들을 불러모아 포틀래취(북미 북서안의 인디언 사이에 선물을 분배하는 행사. 여기서 파생되어 선물을 주는 축연, 파티를 뜻한다)나 선물을 주는 축제를 벌여 남는 것을 그들의 필요대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어야 한다. 특히 과부와 고아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생각해야 한다.

다른 한편 홍크파파 수우족의 추장 시팅 불(얇은 황소)은 이렇게 외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다른 인종과 상대하고 (있는데, 이들은) 소유의 욕망이라는 열병에까지 걸려 있다. 그러나 돈을 가진 자는 그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둬서, 그것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부자들의 생활을 지탱해 주고 있다.

추장 시팅 불은 아마도 인디언 맑스주의자였던 듯하다. 뿐만 아니라 윌라스는 그의 『평화의 순수한 근원』이라는 글 속에서 인디언들을 이렇게 평하고 있다. “그들은 이론보다 실재가 훨씬 더 앞섰다. 그들의 종교는 신학보다도 더 전진했고, 그들의 정치제도는 정치학보다 더 성숙한 것이었다. 그들이 잘 알고 있었던 유일한 과학은 인간관계라고 하는 과학이었다.” 한마디로 말해 하늘을 아버지로, 대지를 어머니로 여기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인디언의 과학은 곧 휴머니즘이었던 것이다.

3.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휴머니즘

인간은 굶어 죽지 않을 천부적인 권리를 지니고 있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는 주위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무조건 살려내야 할 천부적인 의무도 역시 주어져 있다. 이런 게 인간에 대한 자연의 자연스러운 요청일 것이다.

혹시 우리는 옆집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 순간에도 나의 꽃밭에 자상하게 물 뿌릴 사람들은 아닐까. 우리는 추운 겨울 골목길에서 들려오는 ‘참쌀 떡억~’ 하는 목선 소리를 따뜻한 안방 구들목에서 즐기는 한 겨울 밤의 운치로만 생각할 뿐, 입에 풀칠이나 하려고 추운 길 위에서 떨며 내닫는 장사치의 아픔은 모른척하지는 않는가.

인간은 이성이라는 미명 아래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다. 그리고 인간만이 웃을 줄 아는 유일한 동물이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만이 웃음거리가 될 줄도 아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도쿄 올림픽 준비로 경기장 확장 공사를 하다가 지은 지 삼 년밖에 안 되는 집을 부득이 헐게 됐다. 그런데 인부들이 지붕을 들어내다가 꼬리가 못에 박힌 채 꼼짝 못하는 도마뱀 한 마리를 발견했다. 그 도마뱀은 집 지을 때 못에 박혀 삼년 동안이나 움직이지 못하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온 것이다. 인부들은 어찌 이 도마뱀이 한 자리에 붙박인 채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았는지 몹시 의아했다. 그들은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얼마 후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꼬리에 못이 박힌 자기 동료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을 발견했다. 그 도마뱀은 그 기나긴 삼 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친구를 위해 먹이를 날라주는 고행을 말없이 수행했던 것이다.

하찮은 도마뱀조차 이러하거늘 하물며 인간은 어떠해야 할까.

휴머니즘은 사실 지극히 단순한 것일 수 있다.

예컨대 자신이 기르는 애완 동물에 쏟아 붓는 애정의 절반이나 100분의 1 정도만을 주위의 힘든 동료 인간에게 베풀어주면, 그게 당당한 휴머니즘이 될 수 있는 것임은 물론이다. 말 못하는 동물에게도 지극한 정성을 기울일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인데, 하물며 같은 인간에게는 무슨 번잡한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휴머니즘이

란 “어떠한 동물도 우리가 해왔던 것을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내면의 야수가 하라고 강요한 것을 거부했다”라고 선언하는데 있음에라.

1) 이기주의와 ‘신(新)휴머니즘’

유럽과는 달리 우리 민족은 휴머니즘(Humanism)의 시대를 체험한 적이 없다.

그런 민족에게 ‘인연’이란 것은 지극한 인간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 하지 않았던가. 과연 이보다 더 지독한 인간 사랑이 또 어디에 존재할 수 있겠는가. 서양인들이 가령 ‘원수를 사랑하라’고 살벌하게 가르쳤다면, 우리 선조는 ‘이웃 사촌’이라 일렀다. 얼마나 정답고 훈훈한 인정인가.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 ‘이웃 사촌’이라는 따스한 삶의 정서가 곧 종교의식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인간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인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에만 전념해왔다. 이를테면 우리는 서로 손잡아 보살피고 가꾸어나가야 할 인간관계를 관리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참담한 ‘경영학적’ 현실 속에 살고 있다는 말이다. 실은 이 모든 게 이기주의의 발로라 할 수 있다.

이기주의는 비인간적인, 너무나 비인간적인 재앙의 불씨며 뿌리다. 인간의 이기심은 질투와 경쟁심이 만든 새장이다. 그러므로 이기적인 인간은 자신 스스로가 만든 새장 속에서 꼼짝달싹 못하거나 짓눌려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사슬을 장신구처럼 자랑스레 몸에 지니고 다니려고만 한다. 이기적 인간이야말로 자신의 값은 알지 모르지만 인간의 값어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임에라.

예컨대 『뇌내 혁명』이란 책으로 선풍을 불러일으켰던 일본 의사 하루야마 시게오는 ‘활성 산소’가 유전자를 노화 및 질병의 길로 이끄는 악성 인자라 규정한다. 그런데 그는 예고가 지나쳐 자기 이익만을 탐하는 이기주의가 극성을 부릴 때 바로 이 활성 산소가 대량으로 방출되어 명을 재촉하게 된다고 결연히 주장한다. 따라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체는 “개체로서가 아니라 종(種)으로서” 생명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친다. 이를테면 이기주의란 의학적으로 볼 때도 자신의 생명조차 거스르는 반인간적이고 반인류적인 악습이라는 말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앞으로의 세계는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개인주의'와 개인에 대한 개입을 통해 공동체적 결속을 지향하는 '집단주의' 또는 '국가주의'의 대결로 점철될 가능성이 짙다.

이런 맥락에서 세계사적 성감대인 한국 사회는 지금 이중적 시련에 봉착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요컨대 한국 사회는 복합적 '회복 운동'을 과감히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갈림길에 서 있다는 말이다. 이를테면 상호 모순관계에 빠져 있는, 서로 얽히고 설킨 두 과업이 동시 해결을 촉구하는 역사적 문제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곧 개체적 자유 회복과 집단적 연대 구축의 동시적 구현이 바로 그 과제다.

한국인은 작게는 가문, 혈연, 문벌, 학연, 크게는 지역 공동체와 민족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에 따라 유형과 속성을 달리하는 다양한 공동체에 연루되어 그 집단의 자의식에 지배당하고 있다. 그것은 문벌적, 족벌적, 봉당적, 향당적, 지방적 편협성을 극복 청산하지 못하는 소집단 충성심과 소집단 애국심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그것은 타 집단에 대해 가지는 불신, 경계심, 공포심과 자기 집단에 대해 지니는 무조건에 가까운 아량, 이해심, 무비판적 종속감, 그리고 무분별한 정실주의로 나타난다.

문제는 바로 이런 부정적 공동체 의식이 전체 사회의 규범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 집단의식이 침투하지 않는 영역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모든 사회 문제의 밑바닥에는 대부분 바로 이 부정적 공동체 의식이 독기를 머금고 뿌리를 틀고 앉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마치 유럽의 근대사에서처럼, 이런 집단적 신분 질서로부터의 개인의 해방, 즉 개체적 자유 회복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인간적 공생과 집단적 연대를 복원하기 위해 개인의 진정한 해방 위에 우뚝 선 공동체주의에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두 문제에 동시에 육박해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인류사적 과제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와 평등의 동시적 구현에 근접할 수 있고, 또 그를 통해 근대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우리는 요컨대 개체적 해방을 지향하는 개인주의와 집단적 연대 구축을 촉구하는 공동체주의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인간적 해방과 인간적 연대를 동시에 실현해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함께 이 세계를 같이 뜯 수밖에 없는 유한한 생명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서로 아끼고 도와야 할 천부적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공동체를 더불어 가꾸어나가는 애뜻한 협동과 상부상조 정신, 그리고 이 공동체가 그 뿌리를 드리우고 있는 우리의 자연에 대한 숭고한 사랑을 심화시켜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를테면 공동체주의, 자연주의를 복원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역사적 소명이라는 말이다.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한데 어우러지는 삶을 가꾸어나가도록 우리는 극진한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나는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조화를 추구하는 삶의 정신을 우리 시대의 '신(新)휴머니즘'이라 일컫는다.

르네상스 시대 최초의 역사적 휴머니즘은 자연의 재발견과 더불어 신(神)으로부터의 인간 해방을 지향했다. 요컨대 그것은 자율적 인간 존재로의 회귀를 열망하는 존엄한 인간적 몸부림의 표출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신휴머니즘'은 이처럼 형식적으로 선포되지만 한 인간 존엄성을 진정으로 재탈환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의 이 '공동체적 휴머니즘'은 예컨대 특수한 한국적 상황에서는 일차적으로 우리 사회의 근원적인 모순인 계급 문제 및 민족 문제에 의해 가장 직접적으로 고통 당하는 인간 집단의 해방을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사회주의와 공동체주의 그리고 연대(Solidarity)

① 사회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원래 모든 인간에게는 어느 누구도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오직 하나의 자연적 절대 평등이 있다. 즉 모두 죽어서 자연으로 되돌아간다는 사실, 그 하나다. 이를테면 인간들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공동 운명체로서 서로를 아끼고 도우며 더불어 살아가야 할 자연의 소명을 지니고 있다. 자신의 산물들이 상호 공존, 공영,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바라는 것, 이것은 자연의 자연스러운 소망 아니겠는가.

뱀새가 깊은 숲에 보금자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은 나무 한 가지에 불과하고, 두

더지는 강에서 물을 마시지만 필요로 하는 물은 배를 채울만한 분량뿐이지 않은가. 낙타는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등에 질 수 있지만, 개미는 불과 부스러기 하나밖에 지지 못한다. 하지만 둘 다 모두 온 힘을 다 기울인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 마찬가지로 코끼리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마시지만, 쥐는 겨우 한 모금의 물밖에 마시지 못한다. 그래도 쥐나 코끼리 모두 배를 가득 채운다. 열매를 맺으려 땀흘려 일하는 호박꽃의 뛰어난 장미가 어찌 따를 수 있겠는가만, 과연 자연이 장미꽃에게는 예쁘다 하고 호박꽃보고는 못 생겼다고 밉다 할 것인가. 같은 의미에서 자연 앞에서는 인간도 결국은 평등한 존재다.

이런 의미에서 이 절대 명제에 순종하며 인간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사회를 건설하는 일이야말로 자연의 자연스러운 요청이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는 인간 사회의 평등 실현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는 곧 휴머니즘인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는 자연에 대해 자연스럽다.

우리는 사회주의를, 보다 정의롭고 평등하고 행복한 인간적 공동 생활의 최선의 형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끝없이 찾아 헤매는 인간적 노력의 일환으로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사회주의는 인간 공동체의 생성과 그 궤를 같이 하는 장구한 인류사적 전통을 지니는 이상의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사회주의를 무엇보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상호간의 '연대' 구축을 지향하는 체제 및 이데올로기라고 개략적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② 공동체주의와 연대

우리의 공동체주의 역시 사회주의와 유사한 정신사적 전통에 입각해 있다. 공동체주의란 한마디로 인간 공동체 내부에 구성된 상호간의 집단적 평등 및 연대를 수립하고자 하는 정신적 결의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공동체주의는 원칙적으로 개인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지닐 수밖에 없다.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주된 모순은, 한편으로는 칸트에게서 여실히 드러나듯이 개인을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간주함으로써 개인적 권리의 평등을 널리 퍼

고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을 이기적 존재로 읊아냄으로써 타인을 자신의 목적에 이용 가능한 수단으로 여기는 관념을 또한 널리 감싸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맑스가 말하는, '국가' 안에서 '천국적 삶'을 누리는 인간과 부르주아 '사회'에서 '지옥적 삶'을 살아가는 인간 사이에 내재하는 이중성과도 맥락이 닿는다. 요컨대 국가의 차원에서는 '목적'으로 대접받지만 사회의 영역에서는 '수단'으로 취급당하는 자본주의적 인간의 이중적 모습이 여기에 그대로 투영된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는 거인주의다. 요컨대 사회적 권력, 부, 명예 등을 배타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사회 내부의 보다 힘센 세력의 자유만을 우선적으로 비호하는 불평등 체계라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공동체주의는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억눌림 당하는 사회 저변 집단의 해방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런 해방을 시발점으로 해 우리는 비로소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화해와 연대를 지속적으로 추구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힘준한 역사적 과업을 달성하고자 할 때나 또는 우리에게 가해지는 역사의 채찍질이 험난할 때, 개인과 개인 그리고 개인과 사회가 서로 굳세게 결속하고 있다면, 우리의 의지는 강화되고 고통은 약화될 것이다. 이를테면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상호간에 구축되는 역사적 연대는 그만큼 소중한다는 말이다.

이 '연대'는 프랑스 대혁명의 구호 가운데 하나인 '박애(fraternity)'와 맞물린다. 그러나 연대는 본질적으로는 19세기 노동운동의 직접적 산물로서 노동자계급의 동질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의 전통에 입각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와 속성을 지닌 지배 집단의 특권을 제거하고 만민에게 자유와 정의와 번영을 가져다주기 위해 현실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리고 그런 상황을 개혁하려는 단호한 의지와 행동이 절실히 요구됐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연대의 의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연대는 단순한 투쟁 수단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시민사회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회 각 분야의 필수적인 덕목으로 자리를 굳힌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연대는 동등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자발적인 인간적 유대감 및 도덕적 의무감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특히 사회적으로 억압

당하거나 불리한 대접을 받는 종속적 개인과 집단의 낙후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체적 결속과 단합의 표현인 것이다. 그러므로 연대는 예외적인 경우(예를 들어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 등)를 제외하고는 국가의 영역에서 벗어난 기본 가치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국가에 의해 부주겨지는 경우 극단적으로는 파쇼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상황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연대는 오히려 국가에 대한 사회의 저항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른 한편 연대는 집단적 속성을 지니고 있음으로 해서 곧잘 개인적 자유와 충돌할 소지를 적잖이 안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연대는 항상 자발성에 뿌리를 드리워야 한다. 또한 이 연대는 개인적 능력에 따른 자유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곳, 예컨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영역에서는 손쉽게 무장해제 당할 수 있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정서적 일체감, 의식적인 노력, 그리고 상황에 대한 수준 높은 합리적 판단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화시킨다는 것은 물론 그리 손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연대가 우리의 신휴머니즘의 출발점이자 동시에 귀착점이기도 하다는 사실이다.

4. 왜 생명 공동체인가?

자유주의가 표방하는 ‘개인’은 ‘거인’이다. 왜냐하면 자유주의는 ‘힘’의 논리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독주’의 자유만 있지, ‘공생’의 자유는 찾기 힘들다.

더구나 전 세계를 단일 시장화하는 ‘세계화’의 확산과 더불어 소비주의, 물신주의가 동시에 세계화하고 있다. 이를테면 국제적인 차원으로까지 비약해 ‘거인’의 독주만 옹호되고 권장되는 실정인 것이다. 한마디로 ‘호랑이의 자유’만이 극대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말이다. 그리하여 도덕적 진보와 인간적 자아 실현 등을 비판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논법에 따르면 국제관계란 “정글이며, 무정부주의가 규칙이다. 그리고 질서, 정의, 윤리는 예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요컨대 국제관계의 ‘정글’ 속에서는 ‘호랑이’만이 ‘리바이어던’으로서 군림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도처에 ‘시장형 인간’만 주조되고 있다. 이처럼 물신주의가 팽배할 때, “공익을 추구하는 존재로서의 시민의 개념은 사라지고 발가벗은 자신의 사적 이익

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시장형 인간' 만이 활개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지금 '역설' 이 요청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공산권이 몰락한 이후, 특히 과거 동독 쪽에서는 이전 시대를 그리워하는 새로운 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독일어로는 향수를 의미하는 노스탈지어를 노스탈기(Nostalgie)라 부르고, 동쪽, 즉 east를 오스트(Ost)라 칭한다. 그래서, 예컨대 동유럽을 오스트오이로파(Osteuropa)라 부르는 것이다. 이즈음 특히 과거 동독 사람들은 흔히들 '오스탈기(Ostalgie)' 에 시달린다는 말을 자주 뇌까리곤 한다. '오스탈기,' 요컨대 동쪽이라는 '오스트' 와 향수라는 '노스탈기' 가 합쳐진 이 말은, 이를테면 과거 동유럽 또는 공산 동독 시절을 향수처럼 그리워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신조어다.

무엇보다 독일 통일 이후, 특히 과거 동독 지역 주민들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지낼 수 있었던 공감과 연민과 연대의식이 자본주의적 경쟁심으로 돌변해가는 현실을 마주하며 망연자실하곤 했다. 그리하여 외국인, 특히 베트남이나 모잠비크에서 온 유색인 노동자들에 대해 거의 인종주의적인 냄새까지 풍기는 박해와 테러를 일삼기도 했다. 그것은 사실 서독인들에 대한 열등감의 발로일 수도 있다. 즉, 우리의 위에는 서독인들이 있지만 우리의 밑에도 '우리가 짓밟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는 고조되는 실업 사태에 대한 반발의 일환으로,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추방함으로써 자신들의 일터를 확보하겠다는 다부진 자본주의적 생존 의지의 표출일 수도 있다. 어쨌든 과거에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형제애로 보살필 줄 알았다. 또 그것을 미덕으로 여겼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면서 이들은 완강한 자본주의적 경쟁 대상으로 변질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혐오의 표적으로 전락했다. 국제주의적 배려가 민족주의적 탄압으로 돌변한 것이다. 어쨌든 이 '오스탈기' 라는 신조어야말로 과거 사회주의 체제를 체험한 동독 주민들이 당면 자본주의적 정서에 대해 지니고 있는 자조적인 감수성을 예리하게 드러내는 화법의 하나라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미로' 를 걷고 있다. 이 미로 위에서는 전진한다거나 퇴보한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개념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역사의

기하학'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역사적 현실 속에서 나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

자유주의적 개인주의가 횡행하는 개인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거 봉건 사회나 구 공산권을 지배하던 공동체적 인간 연대의 끈을 다시 불러내는 '역설'을 창조해낼 수는 없을까 하고. 그것은 단지 초혼체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인가.

'자주 의식'을 고수하면서 '연대 의식'을 어떻게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를테면 자본주의적 개인주의와 사회주의적 공동체주의를 결속하는 '역설'이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물음인 것이다. 한 사람만이 '역설'에 대해 꿈꾸면 이는 꿈일 뿐이지만, 만일 많은 사람들이 '역설'을 꿈꾼다면 그것은 현실이 된다.

이제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자유주의에 대한 항거가 국제적 차원에서 조직화되어 나갈 것이다. 요컨대 신자유주의는 자신에 대한 저항의 세계화 역시 자초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콜리앗'이 '다윗'에게 무릎을 꿇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명쾌히 보여주곤 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돌아가다'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본디 있던 자리로, 또는 오던 길을 되돌아 다시 가다"로 풀이되어 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그 말이 동시에 예컨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는 식으로 '죽다'의 높임말로도 사용된다는 것이다. 인간이 죽으면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는' 것일까? 자연 아닐까.

인간이란 어차피 자연에서 와서 더불어 자연으로 되돌아갈 피붙이 공동 운명체다. 부귀한 사람도 빈천한 사람도 언젠가는 모두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흙이 되기는 매일반일 터인데도 조그만 눈앞의 이익을 탐해 허망한 싸움을 그칠 줄 모른다면, 그것은 자연과 인간에 대한 원초적 배리가 될 것이다.

예컨대 방금 내 몸 속에서 더운 피를 타고 흐르던 나의 숨결이 바로 옆 사람의 가슴으로 흘러 들어가는 공기가 되고, 조금 전 어느 집 문 창살을 부러뜨린 거센 바람이 지금은 내 이마의 땀결을 고르는 부드러운 미풍이 되어 사랑거리기도 할 것이다. 그러하니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사람끼리 나누는 악수는, 아니 함께 부여잡는 손은, 또 얼마나 인간적이며 자

연적인가. 우리는 단 한 사람의 손만을 잡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그들이 더불어 손 잡았던 모든 사람들의 손을 다 같이 잡는 셈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햇빛 비치는 좋은 날씨만 계속되면 모든 게 사막으로 변한다. 휘몰아치는 거센 비바람이 있기에 새싹이 돋아난다. 허나 사막은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므로 그 샘을 찾아야 한다.

인간은 모름지기 자연의 자연스러운 산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작은 이슬방울, 가느다란 실개천 하나 하나까지 다 받아들임으로써 비로소 바다의 가없는 깊이가 온전해진다는 것을 모른 채 할 수 있을까. 자신이 깨끗하다고 해서 남의 더러움을 기꺼이 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깨끗함이 아니라 결벽증에 지나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여긴대서 남에게까지 그 길을 강요하려 든다면 그것은 옳음이 아니라 자기도취일 따름이라는 가르침을 어이 멀리할 것인가.

무릇 이 생명의 우주는 끝없는 변화와 변화하는 끝을 끝없이 되풀이하는 곳이다. 이 광대한 우주의 틀 속에서 볼 때 우리는 그저 눈 깜빡할 동안만 이곳에 존재할 뿐이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영원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터이다.

나뭇잎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애기의 첫 돌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 실은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하듯이, 영원이 순간의 연속임은 지당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낙엽이 떨어질 때, 낙엽 지는 그 순간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종합에 다름 아닐러니. 낙엽이 떨어진다고 나무가 죽은 것이겠는가. 나뭇잎이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을 위해 숲한 사시사철이 흐르고 쌓여야 했다. 이를테면 순간 역시 영원의 집적일 수 있음에랴. 순간에 영원이 담겨 있는 법이다.

여기에 영원한 순간과 순간적인 영원의 복된 만남이 이뤄지는 것이다. 나뭇잎이 떨어져 거름이 되고 또 그것이 다시 나무를 키우는 새로운 바탕 힘이 되듯이, 개체와 인류 사이에도 이런 끌 힘이 서로를 당기고 있다. 요컨대 인류는 개체의 집적이며, 개체는 인류의 새로운 거름이 되기 위해 떨어지는 나뭇잎과도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가장 비인간적인 것은 이기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죽음이라는 절대 평등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초이기적 공동체주의와 공생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이를테면 우리는 개인의 사익보다는 집단의 공익을 우선하는 자세를 키워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불우하고 꺾박당하는 집단의 인간적 해방을 위해 헌신하라고 자연은 우리를 준엄하게 가르치고 있지 아니한가.

이런 취지에서 우리는 이 지상의 모든 살아 있는 것에 연민을 갖고서 최대한 많은 것에 이득을 베풀고, 그리고 최소한의 것에 해를 끼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든 것은 '살라는 명령'을 함께 부여받고 또 살 권리를 공평히 지녔으니, 우리가 줄 수 없는 생명을 어찌 우리 손으로 함부로 취할 수 있겠는가.

자연이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의 소유물임에라.

따라서 모든 생명의 원천인 자연을 단순히 '보호'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존중' 하는 자세가 보다 소망스러운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과 자연의 합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생명 공동체'를 겸허히 건설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명 공동체'의 건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정치'가 지향해야 할 목표다. ■

박호성 ongdal@sogang.ac.kr |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장. 저서로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노동운동과 민족운동』, 『평등론』 등이 있다.